

세나미 온천

무라카미 중심부 서쪽에 있는 동해(일본해)에 위치한 세나미 온천 리조트 지역은 온천욕과 광활한 바다 전망, 여름철의 활기찬 해변 풍경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12 개의 온천 호텔과 여관 중 대부분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상점과 레스토랑이 즐비한 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인 거리에서 셋길로 올라가면 지하 깊은 곳에서 95 도(섭씨)의 물이 지표로 흘러나오면서 두꺼운 수증기 기둥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전망대인 훈토 공원이 있습니다. 이 우물에서 나온 온천수는 세나미 온천 전역의 목욕 시설에 공급됩니다.

1904 년 이 지역에서 석유를 시추하던 탐사대가 온천을 발견한 이후, 지금의 훈토 공원에서는 염화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온천수가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발견을 계기로 세나미 온천이 개장하게 되었고, 그림 같은 바닷가 풍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세나미 온천의 많은 온천 시설에서는 낮에도 입욕객을 맞이하며, 지역 곳곳에 있는 세 곳의 족욕탕(아시유)에서 온천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요리할 수 있는 현지 인기 간식으로는 온센타마고, 즉 ‘온천 달걀’ 이 있습니다. 메인 거리의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계란을 구입한 후 훈토 공원에 있는 전용 용기에 삶아 드실 수 있습니다.